

한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가 상(像) 분석*

박 회 현¹⁾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이 좋은 정치가로 지각하는 인물과 특성을 토대로 긍정적인 정치가 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교 청소년 1908명이었다. 조사방법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좋은 정치가로 지각하는 인물은 주로 대통령과 왕이 많았다. 좋은 정치가의 특성은 ‘인성적 특성’, ‘인지·사고·행동적 특성’, ‘정치적 태도’, ‘정치적 업적 및 능력’과 ‘외적 특성’ 및 기타 영역의 5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성적 특성’에 있어서는 정직함과 리더십을 가장 많이 인식하였고, ‘인지·사고·행동적 특성’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늘 노력하는 사람, 가치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 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함,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함, 국민의 의견 존중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함 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 업적 및 능력’에 있어서 노예해방 및 인종차별제도 폐지 등 평등실현,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시킴, 한글창제, 남북화합 및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이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치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정치가의 특성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정치교육의 측면에서 존경받는 정치가의 교육적 모델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청소년, 정치가, 긍정적인 정치가, 상, 내용분석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6555).

201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E-mail : gpark25@hanmail.net)

I. 서론

한 나라의 국가발전은 그 사회의 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능력과 태도 및 가치관은 그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앞으로의 정치 민주화 또한 미래의 시민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지니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속집단의 민주주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은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한층 더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청소년은 장차 시민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정치의식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김영인, 2003).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은 이후 성인기 적응양식에 기본이 된다(김광웅, 조유진, 홍기목, 2005). 특히 청소년기는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민감기로서(이순형, 1994), 청소년기는 성인 시민이 되어서 맞이할 여러 인생 단계들의 정치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간단계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김광웅과 방은령(2001)의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라고 하면 어떤 용어들이 떠오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지도자를 응답하였고, 청소년들이 주로 응답한 내용이 ‘부정부패’나 ‘비리’와 같이 정치가들이 행하는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용어를 많이 떠올렸다.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있어 상당부분을 정치인과 연관하여 지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행위의 실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실체자인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의식에서 부정적인 느낌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치인에 대해 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용탁과 모경환(1991)은 기본적인 정치정향의 형성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정치적 태도가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한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정향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 이르면 거의 성인과 같은 수준의 안정된 정치정향을 지니게 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다(Jennings & Niemi, 1968).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성인기의 정치의식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지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순형, 1994; Sears, 1990). 이러한 지속모형 등에 입각하면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잠재적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치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문헌을 고찰하여 보면 정치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광웅과 방은령(2001)이 청소년들이 미래에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응답과 응답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정치

인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14.8%,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83.3%, 모르겠다는 응답이 2.08%로 진로 의식에 있어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정치인이 되고 싶은 이유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치를 바꿔 보려고'라고 응답함에 따라 한국 청소년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묘성, 김의철과 박영신(2002)은 한국 정치 지도자의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에 있어 부정부패(50.4%), 이기주의(12.4%), 권력남용(9.7), 부정직함(8.9%) 등 부정적인 특성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한국의 정치풍토나 특히 정치가에 대한 강한 불신은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5.2%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약 95%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치 불신, 정치인의 자질부족 및 부정부패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제기하였다. Helgesen(1998)은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박영신과 김의철(2006)은 초, 중,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치가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족, 학교친구 및 교사, 이웃, 공무원보다 가장 낮았으며 강한 불신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소수의 연구이긴 하나 최근에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 연구에 있어서도 불신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실천적인 정치교육 측면에서 최근 박영균, 박영신과 김의철(2010)과 서정룡(2002) 등의 청소년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지를 알기 위한 정치효능감을 연구한 결과에서 그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은 다른 효능감 영역보다 정치효능감에 있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정치효능감에 대한 주요 요인을 정치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 나아가서 정치적인 무력감이나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에 비해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야 들어야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기 동안 신뢰의식의 변화를 검토한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를 상기할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점차 성장하면서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의 원인이 청소년 개인만의 내적 문제라기보다 그들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다분히 크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박영균 등(2010)의 연구에서 기성세대 또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여줌에 따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와 이권다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형성하여 이들의 정치효능감

을 낮추는 원인으로 주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과 정치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정치가에 대한 불신 및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청소년 집단이 정치효능감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청소년들은 정치가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적인 무력감 및 개인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가에 대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향된 이미지는 추후에도 정치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게 하여 미래의 시민으로서 정치참여에 대한 활동의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적 모델에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치신념을 증진시키고 및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조성된 정치와 정치가에 대한 불신적 풍토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정치지도자의 긍정적 모델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통찰이 기성세대에게 필요하며, 정치교육 측면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가 상을 창조해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치가 상 연구는 청소년기의 정치교육에 있어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김주현과 이상은(2011), 마정미와 천현숙(2012), 임성호(2011), 최영재(2005), 최영재(2006), 홍창의와 이제영(2009) 등 다양한 정치인 이미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정치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모두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전략 및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과 이미지 회복 등에 후보전략 및 홍보에 초점을 둔 연구이지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발달과 정치교육을 도모하고자 수행된 연구는 아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가 이미지를 연구한 것은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치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드물며, 그 구체적인 내용 탐색하고자 한 연구는 김묘성 등(2002)이 수행한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 및 자질에 대한 연구 외에 현재 부재하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가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소수의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정치가에 대한 불신 수준의 높고 낮음만을 논하고 있거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논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습득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의식의 성장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행위의 실체자인 정치가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정치가에 대한 긍정적으로 경험된 사고와 가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정치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사고의 내용을 토대로 지각된 긍정적인 정치적 인물과 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가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탐색하여 청소년

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정치가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와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시키고 정치가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 맞게 정치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정치교육 측면에서 좋은 정치가의 모델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치의식의 발달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가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정치가를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정치가로서 진로의식을 발달시키는데 좀 더 실제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좋은 정치가로 지각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좋은 정치가의 특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관련법¹⁾에 근거하여 비선거

권자인 만 9세부터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나 조사도구를 구성하는 1차 예비조사에서 학업성적이 평균 이상인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문항개발을 위한 면접과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긍정적인 정치가의 특성에 대한 문항을 이해하고 답을 하는데 대다수의 초등학생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응답에 어려움이 없고, 자신의 인식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중학생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지역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기술식 질문지 총 2000부를 배부하여 1908부를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앞서 본 조사 도구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첫째, 좋은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자신이 평소에 국내외의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말해주십시오(생존 및 사망한 인물을 포함하여 모두 말해주십시오). 셋째, 2번 질문에 답한 인물이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신 사람(들)은

1)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근거하면 청소년기본법은 9-24세(청소년육성차원),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차원)은 19세 미만, 소년법은 20세 미만(청소년교정차원), 유엔의 청소년규정

에 의하면 15-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908)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63	45.2	종교	있음	791	41.5
	여자	1045	54.8		없음	1084	56.8
					무응답	33	1.7
학년	중1	318	16.7	지역	서울·경기지역	564	29.6
	중2	162	8.5		강원지역	203	10.6
	중3	505	26.5		충청지역	375	19.7
	고1	333	17.5		경상지역	370	19.4
	고2	297	15.6		전라지역	396	20.8
	고3	293	15.4				
경제적 수준	상	213	11.2	학업 성적	상위권	506	26.5
	중	1465	76.8		중위권	1121	58.8
	하	196	10.2		하위권	246	12.9
	무응답	34	1.8		무응답	35	1.8
부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80	4.2	모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4	3.9
	고등학교 졸업	559	29.3		고등학교 졸업	745	39.0
	대학교 졸업	934	49.0		대학교 졸업	841	44.1
	대학원 이상	275	14.4		대학원 이상	185	9.7
	무응답	60	3.1		무응답	63	3.3

좋은 정치가로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응답한 인물마다 그 특성을 각각 기술합니다) 넷째, 평소에 정치가와 관련한 책, 대중매체, 학교 교육 및 직접적인 체험 등을 통해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 입니까? 이상의 4가지 질문을 통해 ‘좋은 정치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된 질문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질문의 내용 이해에 있어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1 면접을 실시하여 본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조사 질문지는 예비 조사를 토대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으며, 청소년 정치사회화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청소년학 관련 전공 교수 3인의 자문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긍정적인 정치가 상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자유기술식 질문을 채택하여 사용하였고, 실시된 질문지 내용은 개방형 질문들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외국, 생존 및 사망한 인물을 포함해서 자신이 평소에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모두 기술해주십시오. 둘째,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되는 이유와 좋은 정치가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12년 8월~10월 동안에 서울·경기 7개교, 강원 2개교, 충청 4개교, 경상 4개교, 전라 지역 4개교의 중, 고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여 학급단위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21개교에 설문조사 전 학교장 등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13개교에는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 및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우편 발송한 8개교에 있어서는 담임교사의 협조 및 설명 하에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각각 ID. 1~ ID. 1908 번호를 붙여 내용분석에 사용되었다.

내용의 질적 분석 범주 수립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에 있어 응답 내용(질적 내용)을 수량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법을 실시한 이유는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장점은 첫째, 심리적 변수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둘째, 현지 조사로 불가능한 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자료수집시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셋째, 개방형 질문의 응답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용분석의 절차는 자료의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내용의 범주를 분류하고 정의하여 이에 따라 부호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사된 내용은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단위는 하나의 문맥을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하였고, 원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

는 절차를 통해 그 내용에 익숙해진 후 각 세부 개념에서 출발해서 큰 범주로 묶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1번 문항에 대해서는 최소 0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응답하였고, 2번 문항에 있어서는 최소 0개에서 최대 6개까지 응답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 전체 빈도수는 전체 연구대상자보다 더 많이 집계되었다. 집계체계로는 빈도(f)를 제시하여 수량화하였고, 실제 응답내용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연구대상자가 기록한 내용을 분석 자료에 그대로 기술하려고 하였다. 각 하위 범주와 상위 유목 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심리 전공의 교수 3인과 박사수료자 2인 등 총 5인이 자유기술식 질문지의 내용을 각각 질문에 따른 내용별로 분류한 다음 다시 묶어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검토하고 수정하여 가장 많이 중복되는 유목 별로 분류한 체계를 결정하여 채택하는 절차를 가졌다. 먼저 긍정적인 정치적 인물의 하위 분석 범주는 국내사망, 국내생존, 외국사망과 외국생존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긍정적인 정치가의 특성에 있어서는 ‘인성적 특성’, ‘인지·사고·행동적 특성’, ‘정치적 태도’, ‘정치적 업적 및 능력’과 ‘외적 특성 및 기타’ 영역의 5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 계수 산출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 참여한 평정자는 청소년심리 전공 교수 1인과 박사수료 2인으로 총 3인이며, 평정자간 일치계수(coefficient of agreement)를 구하기 위해 복수의 평정자가 각각 분류한 결과를 가지고 Fleiss의 가중 Kappa 계수를 세 차례에 걸쳐 산출한 결과 .91 .91과

.90이 각각 산출되었고 평정자간 일치도가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인물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인물을 조사한 결과 1908명 중 모른다 혹은 무응답으로 답한 청소년은 303명이었고, 전체 빈도수가 5이하인 인물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긍정적인 정치인물의 하위 분석 범주는 국내사망, 국내생존, 외국사망과 외국생존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좋은 정치가로 지각되는 국내 사망 인물은 노무현을 전체 633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김대중 455명, 세종대왕 449명, 김구 213명, 박정희 165명, 정조 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좋은 정치가로 인식하는 국내 생존인물은 반기문이 전체 17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안철수 156명, 이명박 97명, 박근혜 52명, 문재인 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좋은 정치가로 인식하고 있는 외국 사망인물은 링컨이 전체 53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간디 105명, 루즈벨트 68명, 케네디 58명, 워싱턴 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 생존인물은 오바마가 전체 284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만델라 51명, 톨라 26명, 힐러리 18명, 클링턴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생존인물보다 사망한 인물을 좋은 정치가로 인식하는 빈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에서 보다 국내에서 좋은 정치가를 인식하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주요 특징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긍정적인 정치인물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 주로 대통령과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청소년이 지각하는 좋은 정치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1908명 중 모른다 혹은 무응답으로 답한 청소년은 235명이었고, 전체 빈도수가 5이하인 특성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좋은 정치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인성적 특성’, ‘인지·사고·행동적 특성’, ‘정치적 태도’, ‘정치적 업적 및 능력’과 ‘외적 특성 및 기타’ 영역으로 하위범주를 구분하였다.

먼저 좋은 정치가의 ‘인성적 특성’에 있어서는 정직함(청렴결백, 진실함)이 전체 24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강력한 리더십 127명, 품위와 존경할만한 인품(도덕적 본보기가 됨) 96명, 사람에 대한 배려 등 이타성이 뛰어남 88명, 착함 64명, 겸손함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사고·행동적 특성’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늘 노력하는 사람 92명, 가치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 90명 등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혜로움 58명,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추진력이 있음) 46명, 약속을 잘 지킴 45명, 올바른 견해 및 판단능력이 있음 45명 등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업적 및 능력’에 있어서 노예해방 및 인종차별제도 폐

표 2.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인물

(N = 1605)

범주	인물	고등학생		중학생		전체
		남	여	남	여	
국내 사망	노무현	109	183	120	221	633
	김대중	97	124	106	128	455
	세종대왕	55	94	155	145	449
	김구	43	58	50	62	213
	박정희	61	21	66	17	165
	광개토대왕	5	2	19	10	36
	정조	7	22	11	13	53
	정약용	1	4	3	9	17
	선덕여왕	-	-	2	6	8
	광해군	6	6	1	2	15
	장수왕	-	-	6	-	6
	유관순	1	2	2	23	28
	서희	3	4	1	-	8
	김일성	6	-	5	2	13
	김정일	-	-	6	2	8
	홍선대원군	-	1	2	3	6
	이이	2	1	3	1	7
	이순신	-	-	14	30	44
	안중근	-	-	7	8	15
	윤봉길	-	-	3	3	6
	단군왕검	-	-	4	2	6
	이승만	1	1	15	4	21
	황희	-	1	4	1	6
	방정환	-	-	-	6	6
국내 생존	반기문	15	36	52	67	170
	안철수	33	45	49	29	156
	이명박	18	5	46	28	97
	박근혜	12	8	18	14	52
	문재인	17	16	9	8	50
	박원순	11	25	-	3	39
	허경영	4	-	8	1	13
	전두환	6	-	6	-	12
	김영삼	3	1	3	-	7
	오세훈	3	3	-	-	6
	유시민	3	3	-	-	6

(계속)

범주	인물	고등학생		중학생		전체
		남	여	남	여	
외국 사망	링컨	85	145	148	152	530
	간디	21	39	30	15	105
	루즈벨트	23	30	10	5	68
	케네디	17	12	18	11	58
	워싱턴	14	6	13	4	37
	처칠	13	7	8	4	32
	히틀러	8	-	9	-	17
	마틴루터킹	8	8	12	2	30
	대처	6	3	1	1	11
	엘리자베스1세	6	1	4	1	12
	체게바라	5	1	-	-	6
	공자	1	1	4	-	6
	레이건	4	1	-	1	6
	레닌	6	-	-	-	6
	호치민	5	2	-	-	7
외국 생존	오바마	33	63	78	110	284
	만델라	13	18	9	11	51
	틀라	9	13	3	1	26
	힐러리	2	9	2	5	18
	클링턴	1	5	2	2	10
	수치	2	6	-	-	8

지 등 평등 실현 전체 3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창제 270명, 남북화합 및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 247명,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시킴 211명, 정치적 지위(대통령 및 UN사무총장 등)를 얻음 166명,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를 행함 145명, 나라의 독립위한 노력을 함(목숨을 바침) 105명, 나라를 잘 다스림 103명, 놀라운 업적을 세움 79명,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음(다수를 선동할 수 있음) 75명, 태평성대를 이룸 68명, 노벨평화상 수상 64명, 민주정치를

실현함 62명, 외교능력이 뛰어남(국제상황 파악이 빠름) 61명, 위기극복능력이 있음 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함(국민이 최우선)이 전체 51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민의 의견 존중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함 358명,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함 306명,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행함 189명,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뛰어남 185명, 부정부패(비리)가 없는 사람 160명, 비폭력 및

표 3.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 분석

(N = 1673)

범주	내용	고등학생		중학생		전체
		남	여	남	여	
인성적 특성	강력한 리더십(카리스마)이 있음	31	34	33	29	127
	정직함(청렴결백, 진실함)	40	96	27	78	241
	착함(선하다)	12	8	22	22	64
	사람에 대한 배려 등 이타성이 뛰어남	12	30	17	29	88
	품위와 존경할만한 인품(도덕적 본보기가 됨)	22	25	23	26	96
	치밀, 꼼꼼, 정확함	1	8	6	-	15
	겸손함	12	17	6	12	47
	온화함과 인자함	3	9	4	8	24
	신뢰로움	4	10	2	4	20
	부지런함(성실함)	5	14	6	7	32
	열정과 자신감이 있음	2	2	4	3	11
	유연성(시대와 사회에 맞게 대처하는 사람)	3	8	4	2	17
	끈기 및 인내	2	3	-	1	6
	용기있음	4	1	2	3	10
	친근함(친밀함)	2	1	1	5	9
	검소(탐욕스럽지 않음)	5	6	1	1	13
	바르고 정의로움	2	2	1	4	9
	책임감	-	9	3	4	16
	안정감(일관됨)	2	6	7	3	18
인지· 사고· 행동 특성	최선을 다하고 늘 노력하는 사람	10	25	19	38	92
	결단력이 있음	16	16	3	-	35
	약속을 잘 지킴	9	19	6	11	45
	올바른 견해 및 판단능력이 있음	6	13	8	18	45
	지혜로움(지성, 전략적임, 현명함, 똑똑함)	8	18	17	15	58
	가치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음	28	33	17	12	90
	언변능력(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남	8	5	1	7	21
	개혁적(개방적), 혁신적임	11	8	6	5	30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추진력이 있음)	17	16	7	6	46
	여러 방면에 재능(학식과 조예)이 있음	3	9	2	6	2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	3	3	2	1	9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	2	3	1	6
	해결방안(현실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8	5	3	5	21

(계속 1)

범주	내용	고등학생		중학생		전체
		남	여	남	여	
정치적 업적 및 능력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시킴	66	66	53	26	211
	노예해방 및 인종차별제도 폐지 등 평등실현	50	69	102	89	310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를 행함	32	32	43	38	145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음(다수를 선동할 수 있음)	15	23	15	22	75
	놀라운 업적을 세움	17	14	22	26	79
	태평성대(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줌)를 이룸	12	20	22	14	68
	한글창제	12	38	118	102	270
	외교 능력이 뛰어남(국제상황 파악이 빠름)	18	22	11	10	61
	부국 및 강국을 만들	10	10	16	14	50
	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함(목숨을 바침)	11	21	41	32	105
	남북화합 및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	44	69	69	65	247
	정치적 지위(대통령, UN사무총장 등)를 얻음	16	32	63	55	166
	민주정치를 실현함(민주주의 수호)	22	19	7	14	62
	좋은 정책(현실에 맞은 정책)을 제시함	10	19	12	10	51
	국가 위기극복 능력이 있음	16	17	13	14	60
	전쟁에서 승리함	4	2	16	9	31
	나라를 잘 다스림	5	10	33	55	103
	영토확장	-	-	11	5	16
	정의사회 구현	7	5	6	3	21
	절망에 빠진 국민을 일깨움(희망을 심어 줌)	3	4	-	2	9
	노벨평화상 수상	13	12	21	18	64
	독도수호	2	4	1	3	10
	안보 및 국가안전(국방 등)	3	2	9	-	14
	어려운 나라를 도와줌	1	2	1	5	9
	많은 복지사업을 행함	9	8	3	4	24
정치적 태도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함(국민이 최우선)	80	166	108	157	511
	부정부패(비리)가 없는 사람	34	47	27	52	160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이 뛰어남	37	42	46	60	185
	서민(소수·약자·빈민 등)을 위하는 정치를 행함	58	60	23	48	189
	조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애국심)	19	16	19	22	76
	평등한(개관적 태도) 정치를 행함(차별이 없음)	23	37	24	29	113
	국민의 의견존중(귀기울임)과 국민입장에서 생각함	51	152	50	105	358

(계속 2)

범주	내용	고등학생		중학생		전체
		남	여	남	여	
정치적 태도	비폭력·평화주의	33	41	42	25	141
	서로 화합을 추구함(싸우지 않고 협력적임)	13	23	9	5	50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함	42	119	53	92	306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있음(좋은 인재 등용)	2	3	1	1	7
	사회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균형감각)	1	11	4	6	22
	권력남용하지 않음	4	9	1	1	15
	대외적으로 당당함(선진국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	9	8	3	-	20
	엄격한 법 집행	5	-	-	2	7
	썩은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7	2	1	-	10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문화보존 및 발전)	1	2	1	2	6
	올바른 역사 인식	1	3	1	1	6
	인권존중(시민의 권리를 지켜줌)	1	22	8	6	37
	미래(후손)를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2	2	4	2	10
외적특성 및 기타	인상이 좋음	6	6	7	14	33
	매스컴에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여짐	2	1	1	2	6
	멋짐	1	4	3	3	11
	외모가 마음에 듭(잘생김)	2	1	2	1	6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외국 등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1	3	1	2	7

평화주의 141명, 평등한(객관적 태도) 정치를 행함 113명, 조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애국심) 76명, 서로 화합을 추구함(싸우지 않고 협력적임) 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적 특성’ 등에 있어서 인상이 좋음이 전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멋짐이 11명으로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가의 특성에 있어 정치가의 일반적인 인성적 특성이나 인지·사고·행동적 특성보다 정치적 업적 및 능력과 정치적 태도 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의

항목과 빈도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외적 특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치사회화 발달과 정치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적 인물과 그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치적 인물에 대해 국내사망, 국내생존, 외국사망과 외국생존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노무현, 링컨, 김대중, 세종대왕, 오바마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 청소년 대부분이 대통령과 왕과 같은 최고 정치 지도자를 좋은 정치가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통령이나 왕이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 및 학교, 서적,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주 거론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생존한 국내의 정치적 인물에 있어서는 현재 UN사무총장인 반기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조사당시 대통령 후보이었던 안철수가 다음으로 많이 조사되어 외국 생존, 국내 사망 그리고 외국 사망 영역에서 조사된 인물이 주로 대통령과 왕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국내외에서 생존한 인물보다 사망한 인물을 좋은 정치가로 인식하는 빈도가 높고, 다양한 인물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에 서보다 국내 인물에서 좋은 정치가를 인식하는 인물수와 전체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에 대한 내용분석 자료를 토대로 ‘인성적 특성’, ‘인지·사고·행동적 특성’, ‘정치적 태도’, ‘정치적 업적 및 능력’과 기타 영역의 5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인 정치가의 특성 분석에 있어 전체적으로 정치가의 일반적인 인성적 특성이나 인지·사고·행동적 특성보다 정치적 업적 및 능력과 정

치적 태도 영역에서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의 항목과 빈도가 더 많이 조사되었으며, 외적 특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하위범주에 비해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Nimmo와 Savage(1976)는 유권자에게 외모와 관련된 특성이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좋은 정치가 상에 있어 정치적 능력과 태도 측면과 더 연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정치가의 특성에 있어 하위범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좋은 정치가의 인성적 특성에 있어서는 정직함을 가장 많이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강력한 리더십, 품위와 존경할만한 인품, 사람에 대한 배려 등 이타성, 착함, 겸손함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인지·사고·행동적 특성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늘 노력하는 사람, 가치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음, 지혜로움, 추진력, 약속을 잘 지킴, 올바른 견해와 판단 능력이 있음 등을 긍정적인 특성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함,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함, 부정부패(비리)가 없는 사람, 국민의 의견존중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함,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행함,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뛰어나, 비폭력과 평화주의, 평등한(객관적 태도) 정치를 행함 등을 그 특성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정치적 업적 및 능력에 있어서 노예해방 및 인종차별 제도 폐지 등 평등실현,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시킴, 한글창제, 남북화합 및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를 행함, 정치적 지위를 얻음, 나라를 잘 다스림 등을 그

특성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적 특성 등에 있어서 인상이 좋음과 멋짐이 긍정적인 특성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Nimmo와 Mansfield(1985)의 이상적 대통령 이미지 연구에서 제시된 정직과 성실, 지성과 신중한 정책결정, 이성적 정치가 정신, 리더십, 이슈에 대한 확고한 입장,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려는 의지 등의 하위요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 있어 대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마정미와 천현숙(2012)의 대통령 후보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특성 부분만 살펴보면 소통됨, 지지도 높음, 문제해결력 있음, 성공함, 추진력, 적극적, 믿을만함, 이성적, 강함, 주관확고함, 친근함, 온화함 등의 구성개념을 추출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특성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인 이미지 연구에서 있어서도 정수연과 양해술(2006)은 리더십, 능력, 정치적 자질, 지성, 신뢰성, 정치적 추진력, 대중성, 합리성, 외모, 강성, 세련, 언변, 의리, 개혁성, 전문성, 약속 이행, 신중성, 근면성, 젊음, 소신, 현명함, 지역현안인식 등과 같은 항목들을 정치인을 선택하는 주요 이미지로 요소라고 하였고, 최영재(2005)는 추진력, 리더십, 친근함, 총명함, 서민적, 포용력 등을 정치 후보자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최근 임성호(2011)는 정치지도자의 덕목을 인품, 설득력과 같은 개별능력, 국내정치능력과 국제정치능력 등으로 구분하고 대학생들이 국가 지도자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덕성이 확립된 지도자로 보았으며, 다음으로 투철한 국가 경영 철학 소유자,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인물, 민주주의가 생활화 된 지도자, 지역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인물, 경제 전문가, 확고한 통일 철학 소유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치가 상은 먼저 인성적 차원에서는 정직한 정치가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정치가, 정치태도 차원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정치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하는 정치가, 부정부패가 없는 정치가, 소수 약자를 위하는 정치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뛰어난 정치가, 비폭력과 평화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정치적 능력차원에서 평등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놀라운 업적을 세운 정치가, 화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정치가,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정치가, 대통령 등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정치가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정치인물과 그 특성 분석을 통해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의 정치가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와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정치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특징에 맞는 정치가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이바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최영재와 박동진(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인 이미지 연구에서 정치인에 대한 리더십, 소통능력, 긍정감정 등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그 후보에 대한 지지와 득표와 같은 유권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치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은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사회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성인 유권자가 되어 정치활동과 참여에 있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발달에 긍정적인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교육 측면에서 존경받는 정치가의 교육적 모델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가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정치가를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정치가로서 진로의식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좀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가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과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좀 더 나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제주지역의 청소년을 제외한 것과 학년별로 고른 표집을 하지 못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비율이 다른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제한점을 지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고른 표집을 통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정치가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내와 외국 정치인물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정치인물을 분리하거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빈도가

높은 각각의 정치가들에 대한 특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청소년의 실제 정치교육 장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특성들을 비교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웅, 방은령 (2001). 한국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집문당.
- 김광웅, 조유진, 홍기묵 (2005).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3), 1-13.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 김영인 (2003). 제 16대 대선이 청소년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과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학연구, 10(2), 73-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주현, 이상은 (2011). 정치인의 이미지 연구: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3), 7-19.
- 마정미, 천현숙 (2012).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미지에 대한 대학생 유권자의 공유개념도: 은유추출기법(ZMET)을 적용하여. 광고연구, 95, 398-432.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79-113.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서정룡 (2002).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치문화의식의 관계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탁, 모경환 (1991).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 1990년과 1991년의 비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5, 157-171.
- 이순형 (1994). 정치사회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성호 (2011).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2, 203-245.
- 정수연, 양해술 (2006).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인 이미지 형성노력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06. 5. 31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 107-142.
- 최영재 (2005). 정치인의 비언어적 행위와 이미지 형성. 한국방송학보, 19(2), 310-336.
- 최영재 (2006). 정치인의 이미지 관리: 언어 및 비언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1), 378-403.
- 최영재, 박동진 (2012). 정치인과 CEO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인지적, 감정적 요소의 구성과 효과 -. 홍보학연구, 16(3), 250-272.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 홍창의, 이제영 (2009). 국회의원의 정치이미지에 관한 유형화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3, 177-203.
- Helgesen, G. (1998). *Democracy and authority in Korean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 in Korean politics*. NY: St Martin's Press.
- Jennings, M. K., & Niemi, R. G., (1968). Patterns of political learn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5), 11-16.
- Nimmo, D. D., & Mansfield, M. W. (1985). Change and persistence in candidate images: Presidential debates across 1976, 1980, and 1984.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Denver. In K. L. Hacker (ed.), *Candidate images in presidential elections*. Westport: Praeger.
- Nimmo, D. D., & Savage, R. L. (1976). *Candidates and their images: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 Sears, D. O. (1990). *Whither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The question of persistence*. In O. Ichilov (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pp.69-97). NY: Teachers College Press.

1 차원고접수 : 2014. 01. 16.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An Analysis of Positive Images of Politicians Perceived by Korean Adolescents

Park, Huihyu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positive images based on model politicians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they are perceived by Korean adolescents. The sample comprised 1908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methodology used was inquiry ba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The politicians who were seen as being positive models by adolescents were mostly presidents and kings. The content analysis was divided into 5 sub-categories; personality, cognitive · thought · behavioral characteristic, attitudes toward politics, political achievement and ability, and external features. Honesty and leadership were perceived to be the most characteristics of a good politician. Politicians who did their best, worked hard, had distinct values were perceived as being the better politicians. In term of public politics, having the public interest at heart, instead of their own interests, and thinking from the position of ordinary people were perceived to be the most favorable political skills of good politicians. Ending slavery and realizing equality, development and growth in the economy, and creating Hangeul were perceived to be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chievements. These results will help create positive images of politicians. Additionally by analyzing images of positive politicia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n educational model of respected politicians for adolescents.

Keywords : adolescent, politician, positive politician, image, content analysis